

[제10회 늘푸른연극제 심사총평]

이번 늘푸른연극제에는 참가한 신청작도 연극인이
 폭발적으로 많았으나

일관, 극작, 연출, 배우를 대표하는 분들로 1명씩
 선정해 왔으나 이번엔 극작 부분에서 1편도
 선정하지 못했으니. 한편은 번역이든 또 한편은
 가능하지 않은 신청이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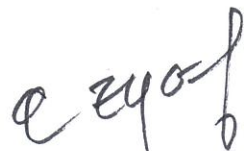
(극작에 보면 한번 있던 작품만해 선정 대상이다)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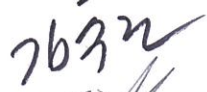


연출 분야에서도 채윤일 연출을 높은 눈높이 많았으나,
 당연히 선정해야 하지만 건강이 따라 줄 것 같아는
 영려 랐습니다

배우, 감독의 부족감까지 선정은 이번이 없었습니다.

채정원, 송현우, 이봉규 등 채정원을,

대신 대필이상의 오랜 활동을 해 온 배우
 이종후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

심사위원 

선정위원 김창화 
 선정위원 김수진 
 선정위원 이인철 
 선정위원 김성노 

제10회 늘푸른연극제 선정위원단

오태영, 김창화, 이인철, 김수진, 김성노